

굶주린 생명보호 불교봉사 시작

임오년을 푸는 불자 ⑤ 불교자원봉사연합회 김애련 사무차장

태고종 일본교구 신년법회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은 1월 30일 일본 나가노현 금강사에서 열린 '태고종 재일본교구 신년하례법회'에서 법문했다.

방송 통일대담 코너 출연
정권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은 8일 오후 2시 K-TV '통일대담코너'에 출연해 대담을 나눈다.

불교공품 자료수집 항일
지흥 조계사 주지는 일본 불교공품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해 1월 21일 일본으로 출국, 25일 귀국했다.

군포교 기어 표창패 받아
지용 서울 수곡사 주지는 사회복지와 군포교에 기여한 공로로 1월 1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표창패를 받았다.

부산 시조문학회장 피선
혜륜 부산 약봉사 주지는 1월 28일 열린 부산 시조문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무애재단 장학금 전달
서돈각 무애문화재단 이사장은 2일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제8회 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공불연고문 추대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월 3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공무원불자연합회 신년법회에서 고문으로 추대됐다.

생불연 법회서 특강
박완일 한국사회교육연구회장은 1월 20일 제주 해성사에서 열린 생활불교연합회 주최 법회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

현대불교문화상 수상
김성동 소설가는 1월 24일 조계종 총무원 주최 제7회 현대불교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민영교도소 심사위원
이혜숙 종교사회복지연구소장은 올해부터 법무부 민영교도소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1월 25일, 생태계 평화운동 2002 '아생조수 사랑의 먹이주기' 행사를 막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 이하 불자연) 사무차장 김애련 씨(45)를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불자연 사무실에서 만났다.

"겨울 휴식이 때는 다람쥐, 너구리, 토끼,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이 먹이감이 부족해 굶주리다가 결국 죽기까지 합니다. 77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리산 뱀사골에서 먹이를 뿌려줬습니다. 이렇게 굶주린 생명들부터 살리는 일이 불교자원봉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94년 9월 불교계 최초로 결성된 자원봉사단체 불자연에 김 사무차장이 등지를 든 것은 97년 1월, 고차 자원봉사자 75년 여의도에 있었던 국제행사에 4박5일간 참가한 것이 전부였던 김 사무차장이 입버릇처럼 부처님 곁에서 일하고 싶어 하다가 방생선원 성덕 스님과 인연이 닿아, 지금까지 불자연 살림을 도맡고 있다.

"그동안 불자연은 자원봉사자 특화교육의 일환으로 94년부터 1년에 두 번씩 3개월 과정의 자원봉사사민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출했지요. 각 시설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를 파견·배치하고, 결실아동을 위한 '희망의 민들레 도시락 보내기' 사업과 불교호스피스



봉사단인 '비하라' 등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원봉사사민대학과 봉사자 파견·배치 사업을 한층 강화하면서, 김 사무차장은 새해를 맞아 중점 사업으로 국내외 구호 및 결연사업과 환경운동 분야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래서 북한 탈북자 사회 적응 프로그램인 '통일씨앗가족-시장보기프로그램'과 생태계 평화운동 사업의 '아생조수 사랑의 먹이주기', '장년 우포늪 환경사랑 캠프', '국토 푸르게 가꾸기 사업'으로 온오프를 심는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불자연의 활동력을 높이기 위해 후원모금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자원봉사자 교육과 배치사업 중심의 사업들은 다소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데에 있어 '몸보시'에만 치우친 경향을 지적한 김 사무차장은 "노력봉사 등의 자원봉사 활동 못지않게, 후원금과 물품을 좀더 세련된

탈북자 사회적응·국토가꾸기도 추진

방법으로 모금하는 후원프로그램이 중요하다"며 "전문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와 선진화된 후원모금프로그램이 만나 자원봉사 활동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차장은 4월 부산에 있을 '자원봉사관리'를 위한 아·태지역 대회와 9월 'AVA 세계자원봉사대회'에도 참가해 자원봉사의 전문적인 시야를 넓힐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a.com

여성경제인협 3대 회장 이영숙 씨

"공약 그대로를 실천하는 것이 불자로서 부처님전에 부끄럽없이 회장을 수행하는 길이 아닐까요?"

1월 29일 서울 힐튼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차 여성경제인협회 정기총회에서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영숙(68·법명 '근관') 부산 코모도호텔 대표는 나직하게 되묻는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불제자의 도리"라고 강조하는 이회장은 "내실있는 투명경영을 협회



"'봉사·사회 환원' 참보시 실천"

운영에도 도입해 맑고 바른 기업인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내 능력이 닿는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진정한 보시"라는 이회장의 사회환원과 봉사는 이미 정평이 나 있다. 부산불교신도회 부회장과 불승종 부산신도회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회장이 대표로 있는 부산 코모도호텔은 각종 불교계 행사가 가장 많이 열리는 곳인 동시에 이회장이 교계 주요행사시 장소나 음식을 무상으로 보시하며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을 올곧

전통찻집 예다원 운영 이유순 보살

대 강의실로 무상 제공하고 있는 이 보살은 전공을 살려 예절과 다도 강의도 직접 하고 있다.

축서사가 마을에서 밀어 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에서 이 보살의 이같은 장소 제공으로 축서사 불교교양대는 지방에서는 드물게 많은 숫자인 50여명의 불자들이 공부에 몰두하게 하고 있다.

"세상이 평화로우려면 불법을 제대로 아는 불자들이 많아져야 된



찻집을 불교교리 강의실로

"절에 가보면 신도를 접하는 모양이 가지각색입니다. 처음 입문하는 초심자들에게는 사찰예절과 기초교리를 꼭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스님들이 좋은 강의를 해주시고, 불자들이 배우고자 하는 열의도 높아 장소제공이 즐겁기만 합니다"

경북 봉화읍에서 '예다원'이라는 전통찻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순보살(49)은 수요일 저녁에는 손님을 받지 않는다. 예다원이 축서사 불교교양대 강의실로 변하기 때문이다. 봉화를 중심에 있는 찻집을 매주 불자들을 위한 교양

대광불교대학 164명 수료식

대광불교대학(학장 심산)은 1월 30일 통도사포교인 법당에서 제1기 정규과정 통신반과 제6기 신학교 수료식을 봉행했다. 164명의 졸업생들과 가족 등 4백여명이 동참한 이날 수료식에서 심산 스님은 "졸업은 새로운 시작이니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부처님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신년하례법회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인재)은 1월 28일 서울시 송현로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 자비의 전화 원장 정덕 스님을 비롯해 여성개발원 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도영 스님은 "여성불자들이 앞장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항상 깨어있고 공부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선사 제23기 교양대학 졸업식

조계종 제25교구 봉선사는 1월 29일 청풍루에서 제23기 교양대학 졸업식 및 수계식을 가졌다. 봉선사 조실 월은 스님, 주지 일면 스님, 졸업생 64명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한 졸업식에서 일면스님은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신행 생활이 꼭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아동 친구되기 캠프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지현)은 1월 25일 장애가정 자녀들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열린마음으로 친구되기' 일일캠프를 대구 우방타워랜드에서 열었다. 40여명이 참가한 이날 지현스님은 "부모의 장애로 가족단위 여행이나 나들이가 어렵다"며 "이번 행사로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서로 친밀해지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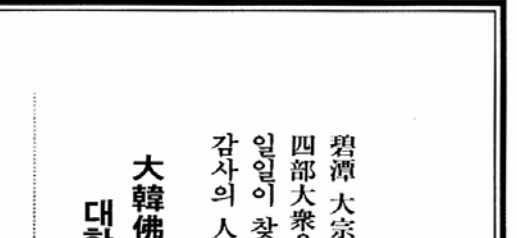
생불연 법회서 특강

박완일 한국사회교육연구회장은 1월 20일 제주 해성사에서 열린 생활불교연합회 주최 법회에 참석해 특강을 했다.



현대불교문화상 수상

김성동 소설가는 1월 24일 조계종 총무원 주최 제7회 현대불교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민영교도소 심사위원

이혜숙 종교사회복지연구소장은 올해부터 법무부 민영교도소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訃 告

大韓佛敎法印宗 宗正 碧潭(金源植)大宗師께서 宿환으로 佛紀 2546年(양) 1월30일 오전 7시30분
법인종 총본산 개운사에서 入寂 茲以訃告

● 永訣日詩 : 佛紀 2546年 2月 1日(陰12月20日) 午前 10時 ● 永訣式場 : 법인종 총본산 개운사 ● 茶毘場 : 부산시립 영락공원

大韓佛敎 法印宗 碧潭大宗師 門徒葬 葬儀 委員會

- 證 明 : 하담, 학암, 지산
- 葬儀委員長 : 만오
- 副委員長 : 무성, 노암
- 護 喪 : 설봉
- 葬儀 委員 : 윤경, 청암, 정재, 호산, 호암, 보현, 지경, 화성, 대명, 운휴, 운강, 사명, 법월, 법인, 월산, 법일, 일건, 범우, 만응, 혜영, 혜일, 현도, 범공, 만공, 도현, 청산, 호천, 운백, 운덕, 운오, 운강, 운주, 법일, 법정, 범승, 도원, 무공
- 일본교 오사카 법인종 용화사, 만오, 성오, 요시다세이호, 요시무라, 권혁진, 김광식, 윤용홍
- 개운사 신도회, 미륵대불회 회장 장영선, 부회장 조상자
- 葬儀 委員 : 총무 김명숙, 관음회 회장 김삼연, 부회장 이옥선, 총무 조현자, 지장회 회장 조현자, 전관음회장 허복연, 전미륵회장 하분진, 이정순, 임남조, 김필숙, 안정임, 권향순, 하남자, 박영자, 김옥자, 정순애
- 執行 委員長 : 하담
- 都 監 : 범공, 호산
- 知 賓 : 청산, 대명
- 侍 者 : 범 승 외 문도 대중
- 銀 上 左 : 법일, 범우, 법월, 법인
- 法 上 左 : 설봉
- 孫 上 左 : 윤경, 운산, 운백, 운오, 운휴, 운강, 운주

大韓佛敎 法印宗 碧潭大宗師 門徒葬 葬儀 委員會

大韓佛敎法印宗 碧潭大宗師 門徒葬 葬儀 委員會 訃告

碧潭大宗師의 永訣式에 元老 大德 스님과 宗團의 큰스님 그리고 四部大衆을 모신 가운데 엄숙히 奉行 하였습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드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紙面으로 감사의 人事를 드립니다.

人事 訃告